

# 만남

2019년 9월  
통권 17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예수님의 변모-----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버림과 따름-----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보게 하소서-----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 보편 지향 :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시다.



## 예수님의 변모

가끔은 마치 혼이 절반 정도는 빠져 나간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야 할 말은 머릿속에 맴돌지만 정작 다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안 한다던가, 집중이 안 되고, 실수를 하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은 뭔가 특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참 인간적이시네요.”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구멍 송송 뚫린 듯한 삶이 인간적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위안이 됩니다만 두 번 인간적이었다가는 머리에 꽃을 꽃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뭔가 기분의 전환을 이루고 싶고, 변화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냅이 나간 사람마냥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변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변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전의 나와 다른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복음이 문득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제자들이 보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분의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변모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지내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한 순간에 바뀐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변하였고, 어쩌면 그 변화된 시선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변모 앞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체험한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각자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어쩌면 내 자신 또는 상대방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변화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향해 실수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 버림과 따름(루카 14,25-3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0장 “승리의 십자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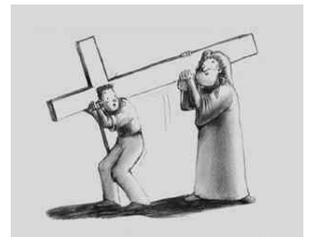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게 하소서.
- ▶ 주님, 당신을 위해 제 자신을 버리고 따르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 25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은 시작만 해 놓고



- 14 30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이미 져야 될 십자가는 정해져 있고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미만을 추구하려는 신앙인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십자가의 삶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연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기에 생각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벗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 등에 맵시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0장 “승리의 십자가”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 소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배분 1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이자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공동체에서 구역장이나 서기에게만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소공동체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역할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 구역장, 서기, 복음나누기 진행 담당, 선교담당, 봉사활동 담당, 회계담당 등.

이때 역할배분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각 담당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역장의 역할

- ① 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의 연락망을 가동해, 모임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공지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② 모임 공백기 동안 구역과 반, 넓게는 본당의 특이 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둡니다.
- ③ 서기에게 협조를 구해 지난 모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둡니다.
- ④ 지난 모임에 계획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⑤ 소공동체 모임 진행자 및 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역할을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⑥ 모임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진행자가 복음나누기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거나, 한 개인이 나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소공동체 모임 성격에 너무 어긋나는 몸짓 혹은 기도를 요구할 때 등).
- ⑦ 소공동체 모임과 복음나누기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점검합니다.



## 25.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가끔 교회 안의 신문이나 이런저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 많은 신자들의 생각이나 의식 그리고 행동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자들은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히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면 세상의 흐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와 법률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러저러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받아온 교육도 그러합니다. 더욱 근원적으로는 사람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마음과 정신의 구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또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회적 세력 사이에서 힘센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조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가두어두는 강제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기도 하고, 또는 현실과 구조에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맞추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바꾸고 변형시키는 것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 사회구조, 세상 현실 등에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현재의 세상과 현실은 당연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윤리의 기준은 지금 현실과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지금 현실과 세상을 바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르 14,38)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 2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를 구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공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도 그러하고, 의회 의원들 역시 시민들을 대리하는 것이지 그 뿌리는 결국 시민의 의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우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사회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다른 편으로 시민은 공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는 “민주주의의 모든 질서를 이루는 주축 가운데 하나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주 정부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과 역할을 얼마나 부여받는지에 따라 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여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90) 그러니 참다운 민주주의에서는 외부 세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어떤 지역적인 일에 개입하게 될 때, 외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변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라리 외부 세력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루카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카 10,29-37)는 가장 힘든 이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설 것을 요구합니다. 동족이었던 사제나 레위인은 길 반대 쪽으로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동족도 아니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과 이상하게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가서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웃”이 되는 길이고, 참다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자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advocacy)가 되어주어야 하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 27. 휴식과 여가

언제부터인지 여름휴가는 쉬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또 해야 하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딘가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휴식과 여가의 시간이 이제 시간과 공간과 상품을 소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자가 볼 때는 이렇게라도 소비가 진작 되는 것이 다행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효과적이고도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은 가난한 이들의 소득을 높여서, 특히 노동소득을 높여서 사회 전체의 경기를 부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날 휴가는 소비사회의 또 다른 한 모습이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휴식과 여가를 달리 보아야 하고, 또 달리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휴식을 해방으로 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다는 것은 종살이에서 해방된 민족(신명 15,15)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방된 민족에게 휴식은 자신만을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다른 노동자와 가축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인 것(탈출 23,12)이며 땅을 비롯한 우주만물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생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휴가가 이웃과 사회에,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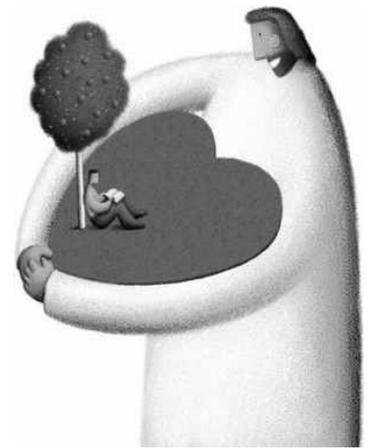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휴식은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하느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휴식과 여가는 자기 자신 안에 하느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휴식과 여가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세상의 속도에서 후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우주만물과 전체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길러야 합니다. 참다운 인간 존재와 행복은 소비하고 생산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상품을 소비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복은 하느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 보게 하소서(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님)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결점투성이의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당신께의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다신 안에 보게 하소서.  
오늘도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올 땐 어찌해야 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 질문

저는 추석이나 명절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친척분들이 오셔서 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좋은데 여러 지역의 여러 연령층이 담소를 나누시다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이 높아지고 막판에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앞으로 얼굴조차 안 볼 듯이 가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장손이시라 명절 때마다 설득을 해 모이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우리 친족들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울까요?

##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형제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명절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이만 먹었지 철이 안 들어서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 해서 대화가 아닌 싸움박질 하듯이 언쟁을 하는 것은 그 논리가 타당한지를 떠나서 어른으로서 성숙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조심히 마셔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친척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요. 어른들끼리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거든 ‘언제 철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참으시고 형제님은 어른이 되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부정적 표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개인적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리적 외상들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개인마다 다르기에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감정조절을 못 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행복관과 인생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각자가 가진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세대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을 면하게 해주고 전쟁을 막아주는 수호신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표를 찍어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독재정권하에서 입에 재갈이 물렸던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알기에 빵보다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국가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신념은 또 바뀌었습니다. 자유고 뭐고 실직하고 부도나고 경제적 이유로 이혼당하고 파산 신고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소위 식자들이 물질제일주의라고 이름 붙인 사회적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먹고사는 걱정이 덜한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말세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돈이 떨어진 세상이 지옥이나 다른 바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심한 심리적 외상을 입었기에 욕을 먹으면서도 쉽사리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연령대별 인생관이 다른 것도 한몫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과 기회를 가지고 싶기에 진보적이고 변화하는 사회를 원하지만, 노인들은 이미 사회에 대한 적응이 되었고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피로감이 높을지라 보수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트라우마를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심리적 환자들이 명절날 한자리에 모였으니 대화의 내용이 정치적인 것에 이르면 싸움박질하듯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내적인 갈등,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마음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 사회도 평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 시편 23장 전라도 버전

아따! 주님이 시방 나의 목자신디/나가 부족함이 있겠냐~잉?/그분이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뉘어볼고/내 빠친 다리 쫄매 쉬어볼게 할라꼬/물가시로 인도해뿌네!(어째스까! 징헌 거)/내 영혼 겁나게 땡겨볼고/그분의 이름 위 할라고/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뿌네!(아따 좋은 거)/나가 산 꼬랑가 끄찍한 곳에 있어도/겁나볼지 않는 것은/주님의 몽덩이와 짝대기가 쫄메만한 일에도/나를 지켜준다 이거여!/아따! 주님께서 저 싸가지없는 놈들 앞에서/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내 대그뻑에 지름칠해 주싱께로/참말로 나가 기뻐볼그마이./나가 사는 동안/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브른 맘씨가/나를 징하게 따라 땡깁께로/나가 어찌 그분 덕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잉?(아따! 좋은 거)

★ ‘이웃사촌’이 그림다(허영엽 마티아 신부님)

어린 시절 하교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낭패였다. 남의 집 처마 밑에 서서 주룩주룩 내리는 빗물을 피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우산 밑으로 살며시 들어가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우산 좀 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다가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지체 없이 자신의 곁을 내어줬다. 나 역시 갑작스런 비 소식에 남의 우산을 같이 쓰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산 속 옆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다. 요즘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에이! 설마” 하며 내 말을 의심할 것이다. 요즘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아주 심한 경계의 눈총을 받을 것이다. 그뿐인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이사한 집에서는 이웃집에 떡을 나누며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일종의 신고식이었던 것이다. 또한 떡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접시에 과일이나 먹을거리 같은 것이라도 담아서 되돌려 주고는 했다.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지만 우리네 인심이 그랬다. 최근에 한 지인에게 이사 떡을 돌린 이야기를 들었다. 지방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 인사차 떡을 이웃에 돌렸는데,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이상한 시선을 느껴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한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그 단어에는 인심이 담겨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조차 생소하다. 언론에 보면 심심찮게 쓸쓸하게 혼자 지내다 고독사한 노인들의 소식이 들린다. 숨을 거둔 지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특히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도 아닌 것들이 노인의 삶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하다못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된다.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화장실 등에서 넘어져 골절을 당한 후에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도 종종 보았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혼자 있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다.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 중에 소외감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만약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에 혼자 며칠을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말을 주고받을 말벗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노인들은 찾아오는 사람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신다. 예전에 본당에서 사목할 때,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방문했더니 그분은 여기저기 숨겨 놓았던 과자며 과일이며 군것질 거리를 한아름 내놓으셨다. 그리고 근처에 살고 있는 젊은 자매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신부님, 이 아주머니는 내 아들, 딸보다 낫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나절이면 나를 찾아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챙겨 놓고, 청소도 빨래도 해줘요. 그리고 가끔 오후에도 찾아와서 이 늙은이의 말벗이 되어준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웃사촌이 가족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 자매님은 자신의 몸이 성치 않으신 데도 불구하고 주변 노인들을 보살피고 계셨다. 알고 보니 본당에서 구역장일과 레지오 단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였다.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네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불행할 때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잠언 27,10). 특별히 진정한 가족간의 사랑, 이웃과의 우정은 환난을 당했을 때 잘 나타난다. 별로 어려움이 없고 상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알 수 없다. 어려울 때 동기의 집을 찾지 말라는 말씀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오히려 평소 진실한 우정을 나눈 이웃사촌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먼저 도움을 청하는 이웃형제를 피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다.

피를 나누었다고 다 형제는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것이다. 평소 진실한 우정을 나눈 이웃사촌이 형제나 친지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웃사촌이 먼 동기보다 낫다고 했을까. 과거의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좋은 전통이 사라져 그저 아쉽기만 하다. 문득 이웃사촌이란 단어가 그리운 날이다.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김윤하	가브리엘	최서로	
3일	그레고리오	김유석		남재민	
4일	로사	김성호		박준영	
8일	마리아	이선주		박연심	
16일	대건 안드레아	권오상		이현후	
17일	로베르토	강경목		최희로	
21일	요나	강일남 이도선		29일 미카엘	이재원 박지현
		이정훈		미카엘라	김혜정 김민현
		박요나		라파엘	김영호 이종하
		안태웅		30일 소피아	박지우 이원규 심재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아퀴나스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베아타	신의경(H)	26일	빈첸시오	추이슬(B)
12일	마리아	양봉자(B) 유복희(O)		가브리엘라	신윤경(O)
20일	하상 바오로	정하상(O)	29일	미카엘	이종열(B) 김일환(H) 정근욱(H)
				라파엘	임석순(H)

❖ 9월 성가번호 ❖

9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29	211	175	283
8일	19	423	151	445
15일	518	513	159	285
22일	찬 양 미 사			
29일	37	212	155	286

❖ 9월 미사 전례 봉사자 ❖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드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3구역
8일	정명옥(살로메) 김매자(베로니카)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4구역
15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전 신자
22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주일학교	청년회
29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요셉 마리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7월 28일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주일헌금	212,35	237,80	254,25	187,83
헌납금	230	220	100	450(배구대회)
구좌입금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690.00 * 헌납금 합계 1,69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7월 23일 - 2019년 8월 19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홍종각, 김계희 Tunas, 황영선, 한선지, 우동천, 서세원,  
 김민옥, 진윤희, 신옥희, 김효정, 현영애, 이정수, 최장용,  
 최순남, 최현봉, 윤석순,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이현묵, 심동근,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이(박)정은,  
 김경미, 김건, 이수웅,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김경렬  
 정순문,

◆ 구좌입금 :

이영원, 육종인, 강일남, 홍경영, 김춘옥 Zerbock,  
 이중지 Rother, 김진호, 김부남, 김원자, 김치수, 김대현,  
 김형웅, 김동수, 김유석, 이석우, 송문규, 정정숙,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최화영, 이정훈, 이성원, 이명원,  
 이상봉, 이영희 Eggerstedt, 이경규, 백정선, 남궁춘배,  
 권지연 Rabe, 박준병, 허두욱, 허길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신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셨던 순교자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2. 제46회 한인 친선 배구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9월 1일 일요일 13시에는 예비신자 교리가 있으며,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와 청년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9월 3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9월 11일 수요일 오전미사 후에는 요셉마리아회 소공동체, 9월 13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9월 26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 9월 27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9월 14일 토요일에는 Nacht der Kirche 행사가 18시 15분부터 23시까지 주교좌성당 주변에서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에서도 한국 음식 바자회를 준비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9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저희 공동체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헌화와 묵념이 있고, 미사 후에는 공동체 나눔의 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싶은 분의 성함이나 사진, 혹은 초를 준비하시는 가정은 제대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7. 9월 20일 금요일은 한국 순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8월 미사는 8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9월 미사는 신부님의 부재로 인해 미사가 없습니다.
4. 10월 미사는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8월 공동체 미사는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하였습니다.
4. 9월 공동체 미사는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Langenhagen에서 봉헌합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8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8월 10일(토)에 설윤자(헬레나) 가정에서 가정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9월 미사는 9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b>사목 협의회</b>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b>주일 학교</b>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올라)	
<b>연령회</b>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b>예비자교리</b>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b>레지오 마리아</b>	<b>민음의 샘 C.</b>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b>자비의 모후 P.</b>	매주 화요일 13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b>평화의 모후 P.</b>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b>사랑의 모후 P. (정년)</b>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b>구역</b>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b>청년회</b>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부회장	강새벽(에스텔)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b>요셉, 마리아회</b>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b>여성 봉사회</b>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 9월(순교자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연중 제22주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예비신자 교리, 사목월례회	청년 소공동체
2	월			
3	화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믿음의 샘 뿌리아	
4	수			
5	목			
6	금			
7	토			
8	일	연중 제23주일, 백로		
9	월			
10	화			
11	수		요셉 마리아회	
12	목			
13	금	한가위	2구역 소공동체	10시 한가위 미사
14	토	성 십자가 현양 축일	Nacht der Kirche	오스나브뤼크
15	일	한가위 미사		미사 후 나눔
16	월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17	화			
18	수			
19	목			
20	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21	토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하노버 공동체
22	일	연중 제25주일		
23	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추분		
24	화			
25	수			
26	목		연령회 월례회	
27	금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4구역 소공동체	
28	토			
29	일	연중 제23주일		
30	월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  
 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